

국힘 “대선 불복·정치 탄핵” 민주 “가장 부끄러운 정권”

여·대통령실 반발... 정국 급랭
여 “국민 부여 의회 권력 남용”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야 “먼저 사의·사퇴 했어야”
이재명 “특별법 제정에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자 정치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하자,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이자 파괴 행위”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며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로터리를 계단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

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석대변인은 “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의 선례조차 제대로 확

인하지 않은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 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도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 탄

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발끈했다.

그는 “이 슬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그렇게 부상을 입혀 놓고 윤 대통령은 과연 국민 앞에서 한번이라도 공식 사과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역대 이런 많은 대형 참사가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 때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총리가 먼저 사의를 표명하든지 주무장관이 사퇴해왔다”며 “윤정권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본인들만 특별한 정권이나”고 반문했다.

그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을 대표해 탄핵안을 발의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직무정지 이상민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국민 심려기쳐 안타깝게 생각”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위가 정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 탄핵 소추에 행안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9분께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조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 탄핵’에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직 내부에선 업무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례 없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중요 맡고 업무에 전념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행안부 간부는 “황망하다”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보니 갑자기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위축감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원들이야 말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추동력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을 대신할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새 차관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시간이 걸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조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조직 운영이나 재난 관련 분야는 누가 해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행안부가 오래된 조직인 만큼 큰 변화나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직원은 “당혹스럽긴 하지만 차관이 관련 업무를 많이 챙겨왔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그나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